

나라살림과 우리의 자세

New Year's National Economics and Our Posture

朴景煥/대한건축사협회 상근부회장

by Park, Kyeong-Hwan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1994년도 예산안의 편성내용 중 주요역점 분야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에 앞서 왜 국민 모두가 정부의 경제계획과 경제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경제라 함은 일반적으로 돈의 흐름과 돈에 관한 학문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산업사회와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속에 있어서의 경제문제는 돈의 문제만이 아니고 정치, 사회, 교육, 문화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도 함께 염두에 두어 종합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최근 쌀 수입개방 문제만 하더라도 쌀은 우리들에게 경제적 요소보다 비경제적 요소인 민족적 정신과 농민들의 생명과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경제적 수치의 논리로 풀 수 없는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요소가 내재하고 있는 점 등이 바로 그 실례라 하겠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냉엄한 국제적 현실속에서 경쟁과 생존해야 하는 현대인으로서 경제원리에 충실해야만이, 때로는 정부의 경제정책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때로는 경제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또한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민층이 두터워질 때, 한나라의 국가적 경제가 더욱 활기와 활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경제정책 방향과 94년도 주요역점 분야의 예산에 대하여 대별하여 요점만 살펴보겠다.

I. 경제정책방향

(KDI 경제전망)

구 분	'93	'94
경제성장률	4.5%	6.5~7.2%
소비자물가	5.4%	5.4~5.6%
세계경제성장률	1.2%	2.6%

1. 재정개혁

(1) 재정능력의 확충

- 조세면제율 제고
 -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세율 인상
 - 93년 19.3%에서 94년 20.2% 수준으로 제고
- 공공자금의 투융자 재원 활동 제고
 - 공공자금 관리기금 설치

연 기금 등이 금융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 예탁된 자금은 재정투융자 정책금융의 재정흡수 및 국공채 연수채원으로 활용

- 인건비 비율 축소(공무원 정원 동결)
- 방위비 증가율 억제
- 경상비 증가율 억제

(2) 세제의 개혁

- 소득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
- 종합토지세 과표현실화 추진
- 다주택 보유 재산세 과세강화
- 담배 소비세 개선
 - 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30% 인상추진
- 1세대 2차량 보유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

2. 금융개혁

(1) 금리자유화

(2) 금융실명제

- 금융실명제가 국민의 경제활동과 생활습관 속에 구조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3. 행정규제개혁

(1) 농림수산업분야

(2) 건설업분야

- 건설업면허 주기를 3년→1년 단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 해외건설업면허제→등록제로 전환

(3) 토지이용관련 규제완화

- 농지, 산지의 거래이용개발관련 규제완화
- 수도권 정비계획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 수도권권역을 5개권역→3개권역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존권역)
- 공단개발절차간소화 및 민간참여 확대

(4) 건축관련 규제완화

- 건축허가 심의절차 간소화
 - 건축심의, 경관심의 등 건축허가 관련 심의제도를 통폐합 조정
- #### (5) 수출입관련 분야
- 수출입절차 간소화
 - 기관 승인제도, 통관절차

4. 경제의식개혁

- (1) 공직자 의식개혁의 추진
 - 민간의식 개혁의 추진

II. 94년도 예산안의 개요

94년도 예산 기조는 경제활력 회복, 국가기강의 확립, 부정부패의 일소 등 깨끗한 정부를 위한 개혁의지를 뒷받침하는 예산이다.

1. 94년 예산안 개요

구 분	'93예산	'94예산(안)	증 감	
			증 감	%
합 계	380,500	432,500	52,000	13.7
○ 국 세	367,624	415,371	47,747	13.0
· 국 내 세	315,121	356,230	41,109	13.0
· 교 통 세	17,440	30,394	12,954	74.3
· 관 세 등 ¹⁾	35,063	28,747	△6,316	△18.0
○ 세 외 수입	12,876	17,129	4,253	33.0

1) 91년에 폐지된 방위세의 체납처분 등 포함('93 : 1,005 → '94 : 535억원)

2. 94년 예산안 주요역점분야의 편성내용

(일반회계 + 주요특별회계, 억원)

구 분	'93예산	'94예산(안)	증 감	
			증 감	%
○ 사회간접자본확충	46,795	60,772	13,977	29.9
○ 농림수산업부문지원 (실사업비) ¹⁾	44,840 (26,224)	53,200 (32,730)	8,360 (6,506)	18.6 (24.8)
○ 중소기업지원	11,007	20,999	9,992	90.8
○ 과학·기술진흥	8,616	11,379	2,766	32.1
○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 (교육예산 총계)	7,483 (98,800)	10,037 (111,350)	2,554 (12,550)	34.1 (12.7)
○ 문화체육 지원	1,946	2,534	588	30.2
○ 국민복지증진 및 국가유공자 지원	27,664	33,524	5,860	21.2
○ 환경개선	3,070	4,130	1,060	34.5
○ 에너지 및 석탄산업	1,922	1,735	△187	△9.7
○ 외교·통일·공보	2,819	3,060	241	8.5
○ 지역균형개발 내실화	15,530	18,740	3,210	20.7
○ 방위비 지원	95,724	104,900	9,176	9.6
○ 민생치안 부문	9,312	11,683	2,371	25.5

1) 소득보장, 채무상환을 제외한 실사업비

3.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획기적 확충

【4조6,795→6조772억원(1조3,977억원, 29.9% 증)】

1. 유통관련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유통세율 인상에 따라 조정되는 재원 등으로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도로, 지하철, 철도 등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확대

('94 주요 완공 사업)

- 도로 : 고속도로 「인천~안산」 등 신설 및 「신갈~원주」 등 확장, 국도 확장 330km
- 철도 : 서울~구로간 3복선 건설, 분당선 1단계(수서~분당)
- 항만, 기타 : 부산항 7부두 확장(110만톤/년), 인천항 6부두(180만톤/년), 울산 6부두(180만톤/년)

4. 대형투자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억 원)			
		92까지	93	94	95이후
경부고속전철사업	107,400 (38,330)	1,122 (1,122)	3,079 (2,137)	5,436 (3,090)	97,763 (41,981)
수도권신공항사업	39,865 (19,040)	877 (877)	2,132 (1,432)	5,610 (2,875)	31,246 (13,856)
평양항컨테이너부두	4,259 (2,629)	644 (503)	446 (264)	1,057 (378)	2,122 (1,482)
계	151,524 (69,988)	2,643 (2,502)	5,657 (3,833)	12,103 (6,343)	131,121 (57,320)

주 : () 내는 재정투자액

5. 중소기업지원의 획기적 확대

【11,007→2조999억원(90.8% 증)】

1. 신용보증 확대등을 통한 자금공급확대 지원 : 4,092→11,433억원
2.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지원 : 4,840→1,721억원
3. 해외시장개척 및 대외경제협력 지원 : 2,075→4,845억원

6.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맑은 물 공급

【3,070→4,130억원(1,060억원, 34.5% 증)】

1.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 2,197→2,907억원
2. 수질오염방지 기초시설 확충 : 368→587억원
3.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재활용 대책 추진 : 351→430억원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94년도 예산개요에 대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중요한 점은 경제적 수치나 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문턱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실상과 현위치를 냉정히 비판해 보고 우리의 취약부분과 장애요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 이를 보완하고 제거하는 길이 바로 선진국으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신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건전한 경제성장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경제의식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엿볼 수가 있다.

어느 경제학자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전입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집계되는 마지막 고비가 바로 “국민의식개혁”이라고 말했다.

다시말해서 실물경제가 발전속도에 맞추어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결국 실물경제의 발전도 벽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성장을 “끊임없이 버리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서 종전의 낡은 법과 제도를 버리고, 낡은 관습과 사고방식을 버리고, 낡은 생활까지도 버리는 과정이 바로 경제성장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91년도의 경제규모(GNP)가 33천억\$('91한국 2,727억\$), 1인당국민소득 27천\$('91한국 6,316\$), 수출 3,145\$('91한국 719\$), 경상수지가 흑자 729\$('91한국 적자 88억\$)으로서 경제대국인 미국을 밀어제치고 초 선진경제 3강국으로 부상되고 있는 역사와 생활관습을 우리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 이웃 일본의 국민의식수준과 그들의 강점을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세계에서 가장 청렴결백하고 유능한 공직자를 가지고 있다. 각종 인허가에 있어서나 행정집행이 합리적이며 공정하여 무엇보다도 깨끗하다. 그리고 국민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공복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다.

둘째, 기업은 다른 나라보다 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윤의 대부분을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와 시설비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이윤보다 사원복지에 우선하고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셋째, 국민들은 공공에 대한 인식과 준법정신이 투철하여 위법, 부실, 부조리에 대해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제하고, 모든 관행과 행동양식이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4배이상이나 되는 27천\$이나 되면서도 호화, 사치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검소한 생활과 성실, 친절, 근면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소비를 줄이고 절약해서 계속 경제력을 키우고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국민들의 각계각층의 국민의식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우리들의 취약점과 개혁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답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의 한민족도 끈기와 강인성과 지혜의 측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의식개혁을 통한 자기정비를 향한 꾸준한 노력과 부단한 변화를 활발히 전개한다면 경제선진국에도 무난히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